

종교서 '해법' 찾는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 '종교와 조정' 주제로 세미나

서로간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회장 연정열)가 그 해답을 종교에서 찾기 위해 10월 8일 경남 창원 법성사(주지 범명)에서 '종교와 조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는 서울고법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가운데 민사부와 관련된 기구로,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관과 법률학자,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성사 주지 범명 스님(대한불교사상연구회 공동대표), 노영환 목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회), 김택환 교수(정치학박사·민주시민정치학회

범명 스님 발제...논총 발간계획

12월 '가사문제' 포럼도 열 예정

장)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사상에 입각해 '조정' 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특히 범명 스님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심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종교가 교리를 중심으로 국민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불교에서는 원호 스님의 화쟁사상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정'의 지혜를 종교적 바탕에서 찾는 것 외에도, 서울고법 조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정' 문제를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분쟁없는 사회 모색'을 주제로 불교 등 8



10월8일 열린 '종교와 조정' 세미나에서 법성사 주지 범명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개 종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었다. 또 오는 12월에는 '가사문제'를 주제로 종교 포럼을 갖는다.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는 세 차례의 포럼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묶어 내년 초 논총(가제)<조정연구>을 발간할 예정이다. 결국 이 논총은 분쟁과 조정, 그리고 가사 문제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이 교리를 근거로 간단하게 종합 정리된 내용을 담게 되는 셈이다.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종교를 주제로 '조정'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은 현재 조정위원회 회장 연정열씨와 법성사 주지 범명 스님의 영향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현재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각각 맡아 불교 사회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고법 조정위원회의 세 차례 포럼도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조정위원회 연정열 회장(전 한성대 총장)은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모든 종교는 인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통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포럼을 갖고 종교의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명 스님 역시 "법률문제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자체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대한불교사상연구회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글·사진=한명우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삼존불 개금불사도 진행

법주사 대웅보전이 완전해제돼 복원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은 10월 7일 대웅보전 해체보수 낙성 대법회 및 이를 기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2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낙성법회에서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400여 년 전 조사스님들이 지금의 대웅보전을 건립하였고 이제 또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은 무량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모습.

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돼 조선 인조2년에 벽암대사가 중창한 목조 2층 170평 규모의 웅장한 법당이다.

법주사/글·사진=혜철 대전 총북 지사장

지역민과 함께 새 출발 해요

낙산사,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경로잔치, 효행상 시상식도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을 열어 화제다.

낙산사가 10월 21일 개원하는 '낙산 노인전문요양원'은 강원도 양양지역 유일의 노인전문시설로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보호를 목적으로 개설했다. 노인전

문요양원은 치매 증종 뇌경색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질환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이미 채용했다. 요양원은 건평 54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물리치료실이 갖춰져 있다.

요양원의 초대원장을 맡은 무문 스님은 "노인요양원 설립과 경로잔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낙산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033)672-2447 김강진 기자

상불사 하남시민위안 음악회

불교세가 열약한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산사음악회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는 10월 28일 오후 5시 30분 경내에서 '하남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가수 남진과 박현의 대중가요를 비롯해 향은 스님의 노래, 풍물·스포츠크린 공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레크댄스, 예선을 통해 선발된 상불사 신도들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하남시의 광주시 스님들이 무대에 올라 대중을 위해 법배와 승무 등을 선보인다. (031)792-4585

이에 앞서 제천 무암사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온 세상을 밝게'란 주제로 8일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25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산사음악회는 하우스님의 법고 타고로 시작해 한국 최고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리듬앙상블의 연주, 인기가수 이동원 이 환수, 가을의 편지 등을 불러 관객들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했다.

박봉영 기자

보령 영신암 무료천도제

충남 보령 영신암은 10월 11일 낙태수술로 죽은 수자영가와 유주무주 고훈을 가를 위한 무료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법회는 낙태수술 전력이 있는 이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천도제를 지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명이 참석했다. 영신암은 이날 법회를 위해 영신재 어산 및 작법 법배 스님 등을 초청했다.

영신암 주지 능인 스님은 "사회 저변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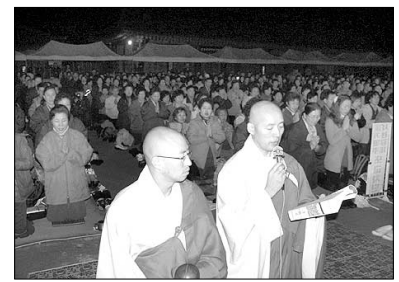
광주 교도소서 위안공연 개최

광주불교교회위원회(회장 현지 스님)는 10월 11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위안공연을 개최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불자 연예인들의 모임인 무명예술사단(단장 이재자의 협찬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가수 주권기, 국악인 오복대, 연주가 유상호씨 등 연예인 30여명이 출연해 재소자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준엽 기자

"지계와 포교 둘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해인사서 8재계 수계법회



해인사 올원장 혜능 스님의 지도로 1500여 불자들이 참회진언을 하고 있다.

"계를 잘 지키며 부처님 법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8일,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가야산에 전국에서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1500여 조계종 포교사와 불자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주최한 '제3회 포교사단 정기연수 및 8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하부 동안 출가자가 돼 불살생(不殺生) 등 8가지의 계를 지키며 자신의 수행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날 저녁 열린 8재계 수계식은 조계종 종정 범정 스님의 증명아래 전제대화상 지관, 갈마아사리 종진,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계를 받기에 앞서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는 참회진언을 한다.

"여러분들은 8재계를 받았습니까?" "호흡수지 하겠습니까?"

'출가자'로서 지켜야할 계목(戒目)을 가슴에 새긴 참가자들은 곧바로 촛불을 들고 해인사 운동장으로 향한다.

해인사 올원장 혜능 스님의 지도로 연비를 한 참석자들은 각각 준비한 서원문을 태우며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또 살 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를 물리치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밤새 이어 나갔다.

다소 피곤하지만 '도반'들과 함께 한 하루 출가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인지 가방을 챙겨 해인사를 나서는 참가자들의 어깨가 무척이나 가벼워 보인다.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나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는 말아라. 한결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들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법의 길을 떠났던 다섯 비구처럼.

해인사/글·사진=유철주 기자

서울 불광사, 중창불사 나선다

시민선방·문화센터·유치원 등

전문연구소 설립, 신형강화 방침

'도심대중 포교' 가치를 들고 지난 30여 년 간 각종 활동을 벌여온 불광사·불광법회가 중창불사를 통한 대중포교의 한 단계 도약을 선언했다.

불광사(회주 지홍)는 10월 10일 현 법당 건물을 헐고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2007년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통해 완공되는 새 건물에는 불자들이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비롯해 문화센터, 대웅전, 유치원, 출판사 등이 들어선다. 특히 신축 건물에는 수도권의 43개 지역모임과 거사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각급모임들이 자유롭게 법회를 열 수 있도록 50여명 수용규모의 작은 법당도 5-6개 마련할 예정이다.

불광사는 건물 신축과 함께 광덕 스님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불자들의 수행활동을 뒷받침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와 지역·계층 대표자들의 모임인 '명동회'도 신도 중심으로 확대해 사찰을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공동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유철주 기자

계룡산 보전 서명운동 본격화

불교성지 계룡산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불교연대(상임대표 장국, 계룡산 불교연대는 계룡산보전 시민모임 등과 함께 10월 9일 광주 갑사에서 불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10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계룡산 불교연대는 앞으로 '계룡산 훼손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용 스티커 제작·배포, 종교시민단체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해초 증정 증명 500여명 수계

한국불교 태고종 아일다음원(원장 수진)은 지난 10월 9일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대승보살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증정 해초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날 수계식은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갈마아사리), 무관 스님(교수 아사리)이 종단을 조월해 증명법사로 동참했다.

수계에 앞서 태고종 전제대화상 수진 스님은 "온전한 마음이 계율이며 계만 온전히 잘 지키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부처님 공양하듯 계를 지켜 다같이 성불하자"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낙산 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초청의 말씀

설악 가을산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눈에 밝히는 모든 것들이 빨갛게 물들어 산도 구름도 흘러가는 계곡의 물들도 우리 가슴에 그리움을 묻으면서 여기 금풍리 언덕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강원도민의 정성과 양양군민의 지극한 원력을 모아 낙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하게 되었사오니 따뜻한 마음 모두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낙산사 복지재단 정념 회장



낙산노인전문요양원 ☎ 033)672-0053 / 낙산사 ☎ 033)672-2448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사회복지법인 낙산사 복지재단

● 일시 : 불기 2549(2005)년 10월 21일(금)
개원식 11시 / 경로잔치 12:00

● 장소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낙산노인전문요양원 앞마당

● 찾아오시는 길

